

열린우리당 지도부 만찬

내가 계속 표정이 기쁜 표정이어서 분위기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대화 내용이 합치되는 것도 있고 결끄러운 것도 논쟁도 있을 것입니다. 무거운 자리인데도 여러분을 만나니 그냥 기분이 좋아져 표정이 무거워지지 않습니다. 무겁고 어려운 얘기를 해도 만나서 대화를 하니 매우 기쁩니다. 생각이 같은 분도, 다른 분도 있겠지만 머리 맞대고 토론하고 의견을 모아 어느 쪽으로 결론을 내어 가는 게 민주주의의 과정입니다. 이미경 위원장을 보면 항상 부럽습니다. 정치하기 이전에 사람이 살면서 도덕적 가치나 이상을 추구합니다. 현실에 살면서 그 기준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지키기가 쉽지 않은데 이의원은 어떤 상황이라도 원칙을 지향하는 자세를 잃지 않고 바른 생각을 하는 것을 마음으로 존경합니다.

유엔결의가 다국적군 지위와 명분을 확보해 준 측면도 있습니다.

인권과 평화 등 고귀하고 소중한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인류의 최고의 이상입니다. 정치하는 사람은 그 이상을 관철할 권리가 있는데 가능합니까. 때때로 뒤로 미루기도 하고 다른 현실적 조건과 당장 급박한 문제 때문에 잠시 이상을 추구하는 자세를 보류하기도 합니다. 작년 9월 추가파병 요청을 받고 9개월이 되었습니다. 여러 생각을 많이 하고 여러 사람과 얘기하

고 때로 싸움도 하고 지냈습니다. 10월에 파병을 결정하고 여러 과정 거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정이 우리에게 어렵게 된 측면도 있고 보기에 따라 좋아진 측면도 있습니다. 파병을 결정할 때보다 훨씬 위험해졌고 일반적으로 고문사건이 공개됨으로써 미국의 도덕적 위상에 상처가 많이 나 버렸습니다. 이런 점이 나빠진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 한국의 처지로 보면 키르쿠크에서 아르빌로 파병지가 바뀌었고 파병이 처음 결정할 때 재건지원도 하지만 때때로 방어적 대응도 필요하고 치안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부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훨씬 없어진 셈이고 줄어든 셈입니다. 다만 일반국민들에 대한 테러 위험이 높아졌습니다. 파병부대의 안전은 높아지고 명분도 전투부대가 아니고 확실한 비전투지원부대가 된 것도 변화입니다. 유엔결의가 다국적군 지위와 명분을 확보해 준 측면도 있습니다. 보기에 따라 이런 변화가 파병 조건은 어렵게 하고 환경은 좋게 만들었다고도 여건 변화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변화의 해석과정에 있어서 삶의 경험, 가치관이 크게 작용하고 각자가 지닌 책임과 무게에 따라 생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끝내 의견일치를 못 얻는 경우도 있지만 서로 입장을 존중하고 성실하게 대화하고 의견을 달리 날 때라도 존중하고 협력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꼭 당을 같이 하는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삶을 같이하는 사람이라면 여야와 정치 입장을 떠나서 함께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기회가 있으면 보다 많은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문제의 결론에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더라도 이해를 높이는 게 중요하고 의미가 있습니다. 욕심으로는 대통령이 걱정을 덜하게 해주었으면 하는 희망입니다. 결론이 합치되지 않더라도 섭섭해 하거나 비난할 생각이 없습니다.